부자 감세 차단·영빈관 국조·김건희 특검…고삐 죈 野

민주, 與 태양광비리진상규명위 맞서 민생 행보·정부 압박 '투트랙'
공공기관 민영화 견제도…정치탄압대책위 첫 회의 갖고 공세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논란은 물론 정부의 '부자 감세' 예산안과 공공기관 민영화 움직임, '김건희 특검'에 대해 전방위적 공세를 가하면서 민생 행보에 더해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태양광 사업'에 대한 비리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문 정부를 '정조준'한 것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로 해석된다.

또한, 정기국회 주도권 싸움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失政)을 대대적으로 부각, '대안 야당'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우선 정기국회 기간 중인 예산·입법 정국에서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는 막아내고, 민생 예산 살리기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다수 의석을 가진 책임 야당으로서 초부자 감세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막겠다는 약속을 국민들께 드린다"며 "원내에서도 반드시 관철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장신구 대여 논란을 거론하며 "자기는 수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차고, 영빈관을 새로 만들어 고혈을 짜려 했다"고 직격한 뒤 "서민 예산을 모두 살려내는 정기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 3번째를 공개한다"면서 "국방 예산 중에 군 장병 전투화 310억원, 축구화 21억원, 팬티 5억원, 양말 4억원을 각각 삭감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대표는 "제가 봐도 황당하고 한심하고 기가 찬다"며 "아이들이 청춘을 희생해 군대에 갔는데 옷도 신발도 제대로 못 신게 삭감을 해버렸다. 선배 장병의 신발을 물려 신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영빈관 신축 논란도 거듭 제기했다.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조사 대상에 '영빈관 예산 편성'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서 최고위원은 "영빈관 예산 내용을 보면 수혜자가 국민이라고 적혀 있다. 이 영빈관 예산을 누가 집어넣었는지 꼭 밝혀야 한다. 이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여러 가지 예산을 전용한 문제 등에 대해 우리 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영빈관 문제도 충분히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일부 공공기관 민영화 움직임에 대한 견제구도 잇따랐다.

이 대표는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을 발의한 것을 언급하며 "민영화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정부가) 우회적 방법으로 시도하는 것 같은데 국민을 속이는 정치는 결코 오래 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철도관제권 이관으로 철도 민영화 시즌 2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는 철도운영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헬게이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내 기구인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도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 올렸다.

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겉으로는 협치와 통합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정적 탄압에만 몰두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본질"이라며 "윤 대통령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왜곡된 국정운영부터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목소리부터 깊이 새기라"고 했다.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도 "(윤석열 정권은) 폭주 기관차처럼 경찰, 검찰, 감사원 등 모든 사정기관을 동원해 전 정권 수사와 야당 수사에 몰입하고 있다"며 "반면 김건희 여사와 장모 수사는 요지부동이거나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은 영빈관 신축까지 이어졌다"며 "과거 영빈관을 옮길 것이라는 녹취록의 내용은 사실상의 지시로 작용했을 법하다. '김건희 특검'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분명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을 오는 20일 항의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희호 여사 탄생 100주년 기념식 및 사진전'에 참석했다. 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박홍근 원내대표, 이 대표, 정춘숙 의원, 김홍걸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어려운 상황 닥치니 DJ 투쟁 기억"

故 이희호 사진전 참석…"DJ 실용적 민생 개혁 노선 걷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닥치니 김대중(DJ) 전 대통령님과 이희호 여사님의 과거 투쟁과 인내의 역사, 국민에 대한 믿음이 다시 기억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희호 여사 탄생 100주년 기념식 및 사진전'에 참석해 "이 여사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운동가로 (남편인) 김 전 대통령님과 함께 민주와 평화, 인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오신 역사에 남을 훌륭한 분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김 전 대통령님과 이 여사님이 걸으셨던 길을 잘 따라서 평화와 인권의 시대로, 민주와 민생의 시대로 확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일 민생을 강조하는 이 대표는 이날도 'DJ 정신'을 언급하며 김 전 대통령의 '실용적 민생 개혁 노선'을 걷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자신을 향한 검경의 수사를 '정적 제거용'이라 언급하며 불편함을 드러낸 이 대표가 '어려운 상황', '투쟁' 등을 얘기한 것은 현 정부의 '야당 탄압' 프레임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일각에선 나왔다.

이날 이 대표와 함께 사진전에 참석한 민주당 지도부는 여성운동가로서 이희호 여사의 삶을 강조하며 '성평등·페미니즘' 문제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박지원 "이용호 선전은 윤 리더십에 상처"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결과 직격…"당내 반윤 정서 싹 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19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결과, 사실상 '윤석열 리더십'에 큰 상처가 났고, 당내 반윤(反尹) 정서의 싹이 트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날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 절대적 열세가 예상됐던 전북 출신의 이용호 의원이 영남 출신의 당내 최다선(5선) 주호영 의원과의 양자 대결에서 40%에 가까운 득표로 선전한 것은 이를 여실히 증명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직격했다.

그는 "정치는 민심을, 경제는 시장을 거역할 수 없음에도 (친윤석열 진영이) 이준석을 제거해 싹을 자르려한 데 대해 상당한 저항과 이른바 '윤핵관'에 대한 당내 반발이 표로 이어진 것 같다"면서 "반윤 정서가 싹틀 것으로 봤는데 (이번 선거를 보니) 이미 싹이 자랐더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하라는 여론이 60%가 넘고 이재명 강압 수사가 아니다는 의견도 과반이 넘는다"면서 "가장 공정한 방식이 특검인 만큼 (이재명·김건희 문제는) 쌍특검에 보내고, 대통령과 제1 야당 대표 영수회담에서는 경제·물가·외교 등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지방선거 전국 최저 투표율, 전당대회 등을 언급하면서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갔다. 그러면서 (호남에는) 탄압엔 뭉쳐서 저항하려는 힘이 여전히 있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의 중앙 정치 무대에서의 영향력 약화, 군 공항 등 지역 핵심 현안에 정치적 실익을 챙기지 못하는 현실, 당내 문제에 대해 올곧은 소리를 내려는 의지가 약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최권일 기자 cki@

지방정가 라운지

차영수 도의원 "세수 예측 정확도 높여야"

차영수 전남도의원(민주·강진)은 "전남도의 낮은 세수 예측 정확도는 결국 도민을 위한 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추진할 수 없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최근 열린 전남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심사에서 "전남도의 지방세 수입 추계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최근 5년간 적게는 13%에서 많게는 17%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세수 예측정확도를 높여 다음 연도 예산에 정확히 반영해야 우리 도민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차 의원은 또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 "사업 11건에 223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도, 실제 집행률은 51%에 불과하다"며 "철근 등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공사 차질이 원인이겠지만,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늘리고 집행률도 더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63 - 9번지 264.8㎡
963 - 10번지 254.2㎡
963 - 11번지 225.8㎡
963 - 12번지 195.0㎡
합 계
939.8㎡ 구 (284.3평)
매매가 71억원
일반상업용지 용적율 1,100%
사옥 및 메디컬센타 신축 부지 적합
(주) GK파트너스 컨설팅 010-3625-1362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 강(6개월 과정)
일 시 : 2022. 9. 13 (화) 오후7시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수강료 : 풍수 + 사주 20만원 (매월)
공개강좌(무료)
일 시 : 2022. 9. 6 (화) 오후7시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2246-1508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MODERN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